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3월 10일(주일) 제1236호

2019년 회복축제

관계의 기쁨

Joyful Relationship

4월 3~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및 부속실
'관계의 어려움' 겪는 성도 위한 치유와 회복의 장



2019 회복축제 '관계의 기쁨'이 오는 4월 3~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및 부속실에서 막 오른다. 이번 회복축제에서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장이 펼쳐진다.

이번 회복축제 강사들은 치유와 회복 전문가들이다. 주강사는 박성심 사모(심리치료사), 채규만 교수(중독치료전문가), 박성덕 소장(연리

지부부가족연구소), 박재연 소장(리플러스 인간연구소),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이다.

주제별 선택강의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다. 특히 이번 회복축제에서는 성도들이 배우고 익힌 내용을 삶에서 직접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습코너가 마련된다. 이관직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이지선 교수(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남윤영 박사

(정신과전문의), 조병민 목사(지구촌교회 상담센터장), 이정환 목사(양재 상담센터), 최용준 목사(서빙고 상담센터), 성주명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김지홍 교수(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구인유 집사(온누리 회복사역 기쁨의 샘), 장순우 박사(정신과전문의)가 강의와 실습을 함께 진행한다.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는 "관계의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이번 회복축제를 통해서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온누리교회 회복축제는 본질적이고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을 돕는 집회이다.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문의: 02-3215-3355, 3532

/ 권한송 기자 kcs123@onnuri.org

온누리교회 환경캠페인

대중교통 이용 및 개인용 컵 사용

온누리교회가 지난주부터 환경캠페인을 시작했다. 앞으로 주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고, 일회용 컵 대신 개인용 컵(텀블러)을 사용해야 한다<관련기사 4면>.

다음 주일(17일)은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교회주차장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에 주차스�티커를 받은 차량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29번째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다음 주일(17일)부터 참가자 모집

러브소나타 서울본부가 다음 주일(17일)부터 4주 동안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관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와 홈페이지(www.lovesonta.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른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접수하면 된다.

러브소나타 시즈오카는 일본에서 막 오르는 29번째 러브소나타 집회이다. 러브소나타 5월 15~16일 일본 시즈오카 그랜십 대홀에서 진행된다. 15일 한 일국제교류포럼(니혼다이라호텔), 가스펠나이트

(그랜십 중홀), 16일 교회세미나(그랜십 회의홀), 러브소나타 집회(그랜십 대홀)가 이어진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배재철(테너), 김영미(소프라노), 송솔나무(플루트 연주자), 안토니오 코가(기타리스트)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한편 사문데코팀에서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집회에서 사용할 화관 제작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미션홀(신관 1층)에서 제작한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

시니어 아카데미가 개강한다. 시니어 아카데미는 65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영성훈련프로그램이다. 서빙고는 3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당일 접수하거나 목회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양재는 3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0분 드림홀에서 열린다.

문의: 서빙고 02-3215-3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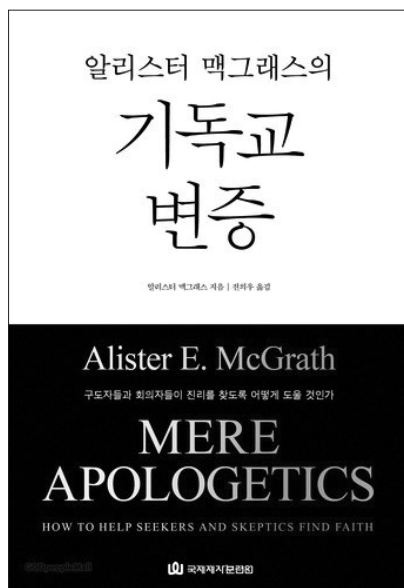
양재 02-570-7469



책 읽어주는 목사

복음의 깊은 뜻을 깨닫도록 돕는다

〈기독교 변증〉



〈기독교 변증〉

알리스터 맥그래스 저 | 국제제자훈련원
| 18,000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믿음과 신앙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어
쩌면 기독교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오늘 소개할 알리스터 맥그

래스 교수의 〈기독교 변증〉은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 쓴 책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알 듯 말 듯하다”이다. 하나님에 대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은혜와 십리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가 잘 알고 있나?”라며 “알 듯
말 듯하다”고 대답한다. 이 대답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
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부분
까지만 알게 된다. 그 이상은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
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
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
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다.

알리스터 맥그래스 교수의 〈기독교 변증〉
은 책 제목에서 풍기는 느낌보다 훨씬 읽기
쉬운 책이다. 변증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소
개로 시작되는 이 책은 변화되는 세상의 문
화를 다루는 2장과 변증학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배경을 다루는 3, 4장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마지막장에서는 자신만의 변증방
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변증학은 대체로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기(defending),
권하기(commending), 번역하기(translatin
g) 등이다. 이 세 가지 주제는 교회 밖 사람
들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들 중에도 신앙의 어려움을 겪으며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유용하다. 우리
의 신앙은 “기독교가 참인가?”하는 질문으
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다 나중에는 “기독교
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 종교인가?”라는 질
문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처럼 신앙에 대한
질문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자신
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저자는 “변증학과 전도는 늘 동전의 양면
처럼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변증
학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반을 닦게
한다면, 전도는 복음에 반응하라고 사람들
을 초청한다. 변증학이 믿음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려 한다면, 전도는 헌신을 끌어내려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도가 빵을 건네는 일
이라면 변증학은 “저기 빵이 있으며 그 빵
이 아주 맛이 있다”고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작업인 셈이다.

변증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끌어오는
기교도 아니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고안된

기법도 아니다. 변증학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 영광을 발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영
광을 향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려는 의지이다. 변증학의 핵심은 기독
교 신앙의 개념, 주제, 가치가 머리와 가슴
에 깊이 박히도록 기독교 신앙에 단단히 불
들리는 것이다. 변증학은 누구도 회심시키
려 의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방해물을 제거함으로써 또는 예수를 보게끔
마음의 창문을 열어줌으로써 사람들을 바
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변증학은 사람들이
복음의 깊은 뜻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다.

변증학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그 주체가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큰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기
독교 신앙에 대해
희미하게 이해하
고 있었던 부분이
얼굴과 얼굴을 대
하여 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해지는
경험을 했다. 성도
님들에게도 동일
한 축복이 있을 줄
믿는다.

안광국 목사
(서초B공동체, 양재 열
린새신자예배 담당)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지금처럼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답: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참된 행복을 놓치게 되실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다들 치열
하게 사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서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B.C. 384~322)는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행복”이라고 했다. 사
도 바울 이후 최고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354~430)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행복”이라
고 했다. 비록 행복을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하
여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
떤 사람은 건강에 매달리지만, 궁극적으로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다.

누구나 추구하는 행복에 관해서 수많은 학
자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한결같이 꼽
는 행복의 요소가 하나 있으니 바로 ‘관계’다.
관계가 순탄하여 원활할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 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불행한 일은 모두 관계의 어려움에 기인한다.

단적인 예로, 사기를 당하여 사람을 데는 믿지
못하는 우울증에 빠지고, 급기야 범죄를 저지
를 생각까지 한다. 여러 범죄와 부정적인 감정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생겨
난다. 사람과의 관계는 ‘필요악’과 같다. 인간
관계가 꼭 필요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
처를 받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혀 상처 주지 않고 관계
를 맺으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
으시고, 변덕을 부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민 23:19, 히 6:18).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삼상 16:7).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주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사
40:8, 벰전 1:24~25). 세상에는 지나가는 사랑
천지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렘 31:3).

만일 “지금처럼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
면” 이처럼 신실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놓치게 된다. 굳이 인간의 삶은 예상대로 되지
않기에 언제 죽음에 이를지 모른다는 한계를
언급하거나,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겠다는 생
각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려는 마음이 아
니라는 지적을 차치하더라도, 예수님을 미리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친다는 게 몹시 안타깝다.

기독교인은 죽어서 가는 ‘천국 소망’만 붙
들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
황량한 세상 속에서도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우리는
사람과 깊이 대화하면서 관계를 좋게 유지하
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
라도 100%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 한계를 우리는 하
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다. 그러면 우리 안에 천국과도 같은 거룩
한 평화가 임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
복감이 우리 안에 몰려온다.

부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
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
나님과 관계를 통해(요 14:27), 우리가 죽어
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과도
같은 삶을 영위하면 좋겠다.

만일 00님이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하나님
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00님에게 이렇게 말씀
하실 것이다.

“00야, 잘 왔다. 오랫동안 널 기다렸다. 넌
존귀한 존재이며,
특별히 내가 사랑
하는 자란다.”

내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셨
고 그 이후에 하나
님과의 깊은 관계
가 시작되었다. 00
님도 그러한 행복
을 누리길 소망한
다.

이강현 목사
(양지 온누리교회)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아론의 기도

민 6:22~27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우리에게 예비 된 세상을
맞이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뒤죽박죽된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이가 없어 고통스러워하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새벽을 가져왔던 사무엘이라는 축복된 지도자를 예비하셨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던 나오미와 룖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을 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기근의 때에 생존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만 하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고통이 없고 더 쉬운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더 안락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삶은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쓰임 받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조직을 정비하고 광야를 통과할 준비를 하던 바로 그때 아론에게 축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여행하기 전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제 광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광야의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여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버려진 땅이지만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발견하는 축복이란 무엇

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여행은 축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22~23절).

그 당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미완료 시제를 통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근거해서 제사장들이 모임을 마칠 때마다 기도를 통해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에서 랍비가 이 기도예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는 것으로 모임을 마칩니다. 경건한 유대인 가정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저녁식사 전에 자녀들에게 아론의 축복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개신교 종교개혁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기도 외에 아론의 기도로 예배를 마쳤던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그 내용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제사장이 선포, 전달, 간구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축복 기도의 내용은 24~26절까지 나오는데 매우 아름답고 운율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복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 비추시고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네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24~26절).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15개 단어가 나옵니다. 15개 단어가 세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한글성경에서도 “여호와께서”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항상 여호와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 번 등장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15개 단어에서 세 번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빼면 단어 열두 개가 됩

니다. ‘12’라는 숫자를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열두 지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또 각 구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서 접속사 ‘그리고’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리고’의 앞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뒷부분은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보면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구체적인 복의 내용입니다. 24절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세 구절이 갈수록 단어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24절은 세 단어, 25절은 다섯 단어, 26절은 일곱 단어입니다. 단어의 숫자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음악에서 ‘크레센도’처럼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한 점점 풍성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고,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신다’고 표현했습니다. 단어의 숫자도 의미가 있거니와 그 내용도 점점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호하심의 복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24절).

첫 번째 복은 ‘보호하심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호하심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보호하심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예수 믿는 농부의 밭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밭에서만 열매를 맺고, 예수 믿는 사람의 기업이 잘 되면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과 단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고 돌보십니다. 만일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깝거나 멀어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만 더 움직여도 지구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전 우주적으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될까?’ 싶을 정도 끔찍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정반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은혜 베푸심의 복

두 번째 복은 ‘은혜 베푸심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 비추시고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25절).

은혜 베푸심의 복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장된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얼굴’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얼굴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사 59:2).

따라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취주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13면에 계속》

주일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텀블러 쓰자!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환경캠페인

온누리교회가 환경캠페인을 시작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과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 사회선교본부 '생명과 환경팀'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올 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일에는 일회용 종이컵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온누리교회의 환경사랑 실천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뛰어 넘어 환경오염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당신의 실천만이 남았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생명과 환경팀이 준비한 재활용 체험을 하고 있는 성도들.

지구가 환경오염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허구한 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온 나라를 뒤덮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느 새 공기청정기가 필수품이 됐다. 조만간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방독면을 쓰고 생활할지도 모르겠다. 환경오염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나에게 닥칠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환경오염이 불러온 지구적 재난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아니 이미 재난이 시작됐다. 일례로 태평양 한 가운데 떠다니던 미세플라

스틱을 먹은 물고기가 우리 밥상에 오르고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누군가 적극 나서야 한다. 교회가 그 모범이 되어야 한다.

온누리교회가 제안하는 환경사랑 실천 운동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생명과 환경을 아끼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매우 간단하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교회와 크리스천

들이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렇다고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더디더라도 조금씩 생명과 환경을 아끼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아주 특별한 두 가지 환경사랑 실천 운동을 시작했다. 첫 번째 환경사랑 실천 운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주일 하루만큼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면 좋겠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5km당 1kg씩 줄일 수 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다. 주차 걱정도 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면 분명 일석이조다.

두 번째 환경사랑 실천 운동은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개인용 컵)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쓰레기를 줄이는 첫 번째 실천이다. 매년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컵(종이컵, 플라스틱 컵 포함)이 36만4천 개나 된다고 한다. 대부분 카페와 모임에서 사용된다. 교회 카페나 모임에서 머그잔을 권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 스스로 텀블러를 이용해야 더욱 효과적이다. 실제로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과 양재 온누리교회 2부 예배 찬양사역팀은 텀블러 사

용을 실천하고 있다.

쓰레기 줄이고, 분리수거도 철저히

사회선교본부 생명과 환경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권장한다. 지난해 서빙고 온누리교회 쓰레기 배출량(폐기물, 음식물 포함)이 238톤이나 된다. 양은 둘째 치고라도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잘 알다시피 한국은 세계에서 쓰레기 재활용을 잘하기로 소문난 나라(도시 폐기물 재활용률 59%; 세계 2위)다. 쓰레기 분리수거만 잘 해도 낭비되는 자원을 아낄 수 있다. 앞으로 원활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서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쓰레기 집하장에 성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린 스테이션(Green Station)'을 설치할 예정이다.

잘 버리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약 0.9kg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적극 나서서 쓰레기 배출량을 눈에 띄게 줄였으면 좋겠다.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를 활용하고, 잔반을 남기지 않는다면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제안합니다



유미호 센터장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봄이다. 꽃피는 봄. 벌써 사람들은 올라오는 새싹들과 꽃들 생각에 마음이 설렌다. 자신을 감싸고 있던 흙을 뚫고 여기저기 올라오는 수많은 싹들을 보면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감동을 즐긴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것은 일회용 컵을 들고 다니는 이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되면서 주요 건물은 물론 길거리 곳곳에서 매장 없이 테이크아웃만 전문으로 하는 카페들이 늘어났다. 버려지는 일회용 컵들이 만만치 않다.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2002년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듯했지만 2008

년 폐지된 이후 소비량이 1년 새 45%나 증가했다. 제도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바른 제도라면 문제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보게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테이크아웃이 익숙한 상황에서 매장 내에서만 대화용 컵을 사용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환경부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시작한 이후 플라스틱 컵은 다소 줄었지만 종이컵 사용량은 오히려 늘었다. 종이컵은 지난 해 봄 쓰레기 대란 이후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 관리대책에서 빗겨나 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일회용 종이컵 사용에 별 관심이 없다. 종이나 분리배출을 잘 해서 재활용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 종이컵 1년 사용량 230억 개(플라스틱 컵 17억 개) 중에서 단 1%만 재활용 되고 있다.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이 컵 안쪽에 붙어있는데 다른 종이나 종이상자와 같이 버려져 재활용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이컵 대부분은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는데 그 처리비용만 수십억이 넘는다.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 이상으로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이컵의 종이는 천연펄프로 원가의 2분의 1정도가 물과 에너지다. 우리가 쓰는 펄프의 80%, 약 8만 톤 정도가 수입된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종이컵으로 인해 50cm 이상 자란 나무 1,500만 그루 이상이 매년 죽어가고 있다.

교회들은 어떤가? 테이크아웃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 날 사용한 컵의 양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되는 나무의 목숨 값일까? 주님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말고, 생명을 더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라"(요 10:10)고 하셨는데 그 값은 치루고 쓰고 있는 것일까? 숲이 사라진 만큼 이산화탄소가 늘었고 지구 온도가 올라갔다. 우리의 일상에서 숲을 만들고 가꿨더라면 지금보다 숨 쉬기 편했을 뿐 아니라 지구의 미래도,

주님의 마음이 훨씬 밝고 환할 텐데. 하나님이 맨 처음 불어넣어주셨던 첫 숨을 기억하면서 교회가 먼저 앞장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를 바란다. 교회 카페는 물론, 업무 및 모임 공간, 행사에서 사용하던 종이컵을 자신만의 컵(텀블러)으로 바꾸고, 공용 대화용 컵을 살균기와 더불어 구매해서 대여하는 방식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주일 하루 컵을 빌려 사용하고 반납하도록 해도 좋을 것 같다. 여럿이 모이는 자리를 위한 벌크형 차 주문에 대한 대비도 해둘 필요가 있다.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종이컵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못하면 세상도 해낼 수 없다. 한 생명도 소외됨 없이 힘을 누림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지 않은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만큼은 대화용 컵이나 텀블러로 목마름을 채우며 자신과 세상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주기를 기도한다.

주일만이라도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Holy Spirit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출 4:10,13).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내뱉었던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모세에게 해결책과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결국 그 자리에 앉히셨다. 여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또 있다. 순장이라는 자리가 부담되어 “몸이 불편한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세울만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라며 그 자리를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가장 소중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 끈질긴 하나님의 부르심 덕분에 근육이 굳어가는 희귀병을 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 김포공동체 공승천 신임 순장의 이야기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끈질긴 부르심에 순종한 공승천 신임 순장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한 공승천 신임 순장 부부.

“저에게 순장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일뿐입니다.”

신임 순장으로서의 각오를 물었더니 공승천 집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준비된 순장’이라는 칭찬을 듣는 공승천 집사도 헌신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공승천 집사를 순종의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삶과 간증에 녹아 있다.

참 끈질기신 하나님

“집사님, 공 집사 좀 설득 해보세요. 집사님이 공 집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아침, 이연옥 집사(김포공동체)가 이규천 장로(김포공동체)의 전화를 받았다. 그 전화의 내용은 순장직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피해 다니는 남편 공승천 집사를 설득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규천 장로님의 전화를 받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기쁜 마음이 더 컸어요. 열심히 섬기시는 순장님들을 볼 때마다 ‘우리 남편도 저렇게 주님께 충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는 남편의 섬김과 헌신을 소망하며

기도하던 이연옥 집사에게 이규천 장로의 전화는 기도응답 같았다. 그때부터 이연옥 집사와 이규천 장로가 합심해서 공승천 집사를 설득했다. 그런데 이규천 장로는 왜 그렇게까지 공승천 집사를 순장으로 세우려 했을까?

“공승천 집사님이 젊었을 적에 신학을 공부해서인지 말씀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계셨고,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순모임에 적극 참석하셔서 섬기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공 집사님을 순장으로 세우면 순종하기를 고민하는 다른 성도님들에게 큰 도전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공승천 집사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끔찍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공승천 집사는 근육이 조금씩 위축되면서 굳어가는 희귀병 ‘근이양증’을 앓고 있다. 그는 그런 자신이 순장직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규천 장로의 끈질긴 설득에도 완곡하게 거절하며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까지 설득에 나서니 도망갈 구석이 별로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기 위해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회피하던 모세의 모습이 떠올랐다. 모세의 모습이 꼭 자신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리기로 했다. 자신의 육체적 연약함과 불안함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

“이규천 장로님의 전화를 받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제가 순장이란니요. 솔직히 너무 두렵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며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끈질기신 분이입니다.”

가장 귀한 동역자들 덕분에...

공승천 집사가 순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사랑하는 아내 이연옥 집사다. 이연옥 집사는 공승천 집사가 순장으로 섬길 때 육체적인 어려움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한다. 순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려워할 때마다 위로와 격려의 말로 응원을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사실 이연옥 집사에게도 순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남편이 순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커져 순종했다. 순모로서의 역할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편과 함께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순장으로 헌신하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큰 변화와 성숙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기도하면서 남편과 함께 동역할 것입니다.”

공승천 집사 부부에게 순장으로서의 좋은 모델이 되어준 부부도 있다. 이승욱 순장(김포공동체)과 김의경 순모(김포공동체)다. 이승욱 순장 부부는 다른 순원들을 챙기기에 정신이 없었을 텐데 몸이 불편한 공승천 집사를 늘 먼저 배려해줬다. 장소 편의를 봐주는 것은 물론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순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었다. 공승천 집사가 순모임이나 예배 등의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혹여나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늘 주차장에서 공승천 집사 부부를 기다렸다가 함께 이동했다. 이번 순장영성수련회에서 본당까지 공승천 집사를 업어주기도 했다. 공승천 집사 부부는 헌신적인 섬김을 보여준

이승욱 순장과 김의경 순모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다고 했다.

“이승욱 순장님 부부를 보면서 순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승욱 순장님 부부께 배우고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이상의 사랑을 순원들에게 나누는 순장이 되겠습니다.”

이승욱 순장 부부는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도움을 받았으며 공승천 집사를 ‘순장만큼이나 좋은 순원이었다’고 소개했다.

“공승천 집사님은 저희 부부에게 참 감사한 순원이셨어요.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큐티 나눔을 하기 전에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재밌게 들려주시곤 하셨어요. 신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말씀에 대해 아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본인의 몸이 불편하셔서 순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늘 걱정하셨는데 오히려 저희가 공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순장

공승천 집사는 순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몸으로 섬기는 일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기도도 섬기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 순원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가 한참 부족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순장으로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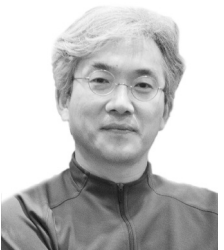
공승천 집사에게 가장 귀한 동역자들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내 이연옥 집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뜨거웠던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축복했다. 이규천 장로는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끝내 하나님께 순종한 공승천 집사가 너무도 귀하다”면서 “연약한 상황을 들어서 사 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공승천 집사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고 응원했다. 이승욱 순장 부부는 공승천 집사를 위하여 늘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장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순장으로서 내딛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야!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디에릭 보우츠의 ‘불타는 떨기나무와 모세’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문화평
론가, 일.하.세. 아카
데미 강사)

지난해 5월, 일본 아베 총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부부가 아베 총리 부부와 함께 한 공식 만찬 석상에서 총리 전속 요리사인 세게브 모세가 디저트를 구두 모양의 철판 그릇에 담아 내놓았다. 당시 성경적 지식이 없는 언론과 사람들은 이를 두고 ‘외교적 결례’ 인지 아닌지 논란을 되풀이했다. 성경에서 신발이 상징하는 바를 모르고서는 이 사건 자체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모세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명화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3장이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가는데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발견한다.

“불꽃이 이글거리는데도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는 걸까?”

모세가 다가가자 아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다소곳한 자세로 대답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출 3:5).

그 자리에서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 밑에서 노예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동족을 구해 나오라는 소명(召命)을 받는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파라오)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 3:10).

오늘 본문과 함께 묵상할 그림은 디에릭 보우츠(1415~1475)가 그린 ‘불타는 떨기나무와 모세’이다. 디에릭 보우츠는 플랑드르 르네상스의 거장인 안 반 에이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네덜란드 화가이다.

보우츠는 아훼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맨발로 무릎 꿇고 소명을 받는 모세의 모습을 하나의 풍경 속에 재치 있게 잘 그려냈다. 보우츠의 그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있다. 마치 무조건 항복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이 자세를 미술사가들은 ‘오란트(orant: 두 팔을 들어 올린 채 서서 기도하는 모습) 자세’라고 한다.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오른손을 들어 축복해 주신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왼쪽보다



가 그린 ‘불타는 떨기나무와 모세’ (1465~70년 작).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더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오른쪽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서 계신 쪽이기도 하다. 그래서 통상 하나님은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림에서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함께 모은 하나님의 손가락은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을, 나머지 세 손가락은 삼위일체를 상징한다. 기독교 미술에서 축복을 표시하는 전형적인 제스처이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왼손에는 투명한 구(球)가 보인다. 원(圓)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상징하듯, 구체도 역시 원처럼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이 완전하고 측정 불가능한 입체로 신성을 상징한다. 많은 화가들이 신현(神現) 즉, 하나님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신 것을 구(球)로 표현하는 전통이 있는데 보우츠 역시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모세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를 상징하는 구를 왼손에 들고 계신다.

왜 “신을 벗어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고 명령하셨을까? 심리학적으로 신발은 ‘세상의 더러운 것을 밟는 비천함’의 상징이자 ‘세속적인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것이 권위이든 더러움이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는 자리에 세속의 것은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당연히 모세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모세가 벗어야 했던 신발은 속세의 더러움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소명 앞에서 내려놓아야 했던 세속적 권위 즉, 모세 자신이 집착하는 자아(自我)요, 에고(ego)를 상징한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일본 간 복잡다단한 외교관계를 단순히 만찬에 나온 디저트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칫 억지 추방이 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현직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전속 요리사가 앞서 말한 성경 속 모세와 신발에 대한 스토리와 그 상징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히브리어로 세게브(Segeve)는 ‘위대한, 숭고한, 강력한’ 등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모세(Moshe)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Moses)를 말한다.

나의 의심은 이렇다. ‘위대한 모세’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노회한 이스라엘 총리의 전속 요리사 세게브 모세가 성경적 상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일본 총리 부부에게 초콜릿을 구두에 담아 먹임으로써 일국의 총리 부부를 한방 먹인 것이 아닐까? 물론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으나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던 나치 독일과 일본제국주의를 동일시하는 심리가 모세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유대인의 나치 콤플렉스와 그들에게서 받은 트라우마는 우리의 상상을 불허한다. 그렇다고 냉정한 국제 외교관계 현장에서 이러한 심리를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 터이다. 그래서 단순한 의전상의 실수를 가장하여 그들의 마음을 애둘러서 표현한 고도의 외교 전략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상징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보고 격분한 40세 모세가 그를 영겁결에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지 어언 40년이 흘렀다. 그 40년 세월은 모세에게 ‘개인적인 출애굽’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80세 모세가 일생일대 최대의 전환점에 섰다. 그의 동족과 함께 하는 ‘민족적인 출애굽’이라는 대장정의 출발점에 선 것이다.

그렇다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본 불타오르는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불은 생명과 동시에 죽음을 뜻한다. 미셀 피외에의 하면 ‘통제 불가능한 힘, 감잡을 수 없는 유동성, 눈부신 찬란함으로 인해 불은 하나님의 상징’이 되었다.

“이스라엘 동족에게 누가 저를 보냈다고 말할까요?”라며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출 3:13-14).

콜린 스미스는 “다른 모든 불들은 연료가 떨어지면 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불은 아무 것도 태우지 않았다. 스스로 생명력을 지녔다”고 말했다. 그렇다. 불타는, 그러나 다른 것을 태우지 않는 떨기나무는 ‘스스로 타는 불’ 즉,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 모세에게 비취진 하나님의 불빛은 이스라엘 민족을 파라오의 압제에서 구해내는 구원의 불, 구원의 빛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일개 양치기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셨다. 당연하게도 모세의 지팡이도 한낱 양치는 도구가 아니라 동족을 노예의 땅 애굽에서 쫓고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휘봉으로 변모했다.

“죽음은 미완성의 완성이다”

죽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완전하지 못한 인간에게 죽음은 미완성의 완성이다.”

우리 속담에 “대문 밖이 저승”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의미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이 사실을 수용하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죽음으로부터 달아나려고만 한다.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죽음은 학회, 사전적 죽음, 법률상 죽음, 의학적 죽음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 학회에서는 죽음을 ‘심장기능 및 호흡기능과 뇌반사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소실(대한 의학회, 1983)’,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2016)에서는 죽음을 ‘죽는 일,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률상의 죽음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망은 일반적 권리능력의 유일한 소멸원인이다. 의학적 죽음의 정의는 심장의 박동이 끝나고, 호흡이 멎으며, 동공이 고정되고, 반응이 없어지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정의는 성별, 연령, 학교, 종교, 건강상태, 가치관, 철학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죽음의 개념이나 의미를 규정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각 종교의 죽음에 대한 이해

윤회설을 믿는 불교에서는 죽음을 생사의 고통을 뛰어넘는 초월의 경지를 가리켜 열반이라고 한다. 따라서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한 생의 종말인 동시에 재생을 향한 행로의 출발을 의미한다. 영혼을 육신으로부터 해방시켜 극락왕생(極樂往生)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유교의 핵심은 조상숭배다. 사실 유교는 조상숭배를 제외하면 종교적인 요소가 미약한 편이다. 유교에서는 죽음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 것인가’를 중요시했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죽음을 그리 긴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면서 경시하거나 등한시 하는 경향이 생겼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죽음이 다가오게 되었다고 인식한다. 성경은 죽음을 영적, 육체적, 영원한 죽음으로 구분한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됨을 믿고, 육체의 죽음을 잠과 같이 여긴다. 그래서 죽음을 영혼의 안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거

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에서 죽음은 육체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새 삶을 사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큐블러-로스의 죽음과 애도단계

사람마다 죽음에 대해 반응하는 양식이

분노(anger)

죽음에 임박한 사람은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더 이상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분노를 느끼고 표현한다. 생각과 감정과 정서가 “하필이면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분노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선부르게 위로나 ‘고통을 이해한다’ 등의 표현을 해서

격려와 위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수용(acceptance)

수용단계에서 환자는 죽음을 수용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감정이 결여된 상태이고 신체적 통증과 불편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기도 한다. 죽음의 불가피함을 받아들인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타협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가족,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진정한 용서가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죽음의 의미 알면 태도가 바뀐다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에 대해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것이 죽음준비교육의 첫 번째 목적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죽음을 피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솔직하게 죽음에 대한 생각과 인식, 정서와 느낌 등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것이 죽음준비교육의 두 번째 목적이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삶도 죽음도 훨씬 더 밝아질 것이다. 특히 노인들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했고, 죽음에 대해 고뇌하면서 나름대로 죽음을 수용하고 있다. 철학, 문학, 종교에서 경험이 죽음에 대한 지혜들이 가득하다. 그 죽음에 대한 지혜를 바탕으로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고 있는지를 꺼내놓게 하면 노인들 스스로 죽음을 이해하게 된다.

죽음준비교육은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암울한 숙명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죽음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음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죽음준비교육의 구체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의 공포를 완화시킨다. 둘째, 죽음과 친숙해진다. 셋째, 변화의 원칙을 이해하게 된다. 넷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



기독교인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됨을 믿고,

육체의 죽음을 잠과 같이 여긴다.

그래서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 입고 사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심리적 반응을 보인다. 죽음과 애도의 과정은 개인적인 성격과 철학, 질병과 사회적 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큐블러-로스(Kubler-Ross)의 죽음의 단계 등을 근거로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부정과 고립(denial and isolation)

큐블러-로스에 의하면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이 부정 또는 고립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절대 일어날 리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진단이나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부인한다. 여기서 부정은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환적 방어的一环 형태이다.

는 안 된다.

타협(bargaining)

타협단계에서는 죽음이 연기되거나 늦추어질 수 있다는 자그마한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 환자는 생명을 단지 몇 주, 몇 달, 몇 년을 연장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내 그 희망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울(depression)

우울단계에서 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죽음에 이르는 구체적인 증상이 심해지면서 우울과 예비적인 슬픔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는 임박한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우울해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3.1운동과 한국교회: 개혁신학적 성찰

일제 폭정으로부터 독립이 3.1운동의 근본 원인

전 민족이 참여한 국권을 되찾기 위한 ‘애국독립운동’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롬나비 상임대표,
송실대 명예교수)

3.1독립 시위는 한 일합방 후 무단정치로 행해진 일제의 민족 수탈과 차별과 통제에 대하여 지도층과 일반 민중이 함께 봉기하여 민족 독립을 요구 천명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사회제도적으로 마약의 유포와 공창제도를 도입하고, 유곽을 설립하여 청년의 도덕적 퇴폐를 유도하였다. 종교적으로는 천황제도의 확산을 위한 신사(神社)를 설립하였고, 일본의 조합교회가 늘어가도록 방조하였다. 종교행사는 가질 수 있었지만, 목사의 설교는 일제 헌병과 경찰의 요시찰의 대상이 되었다. 3.1독립선언은 일제의 1910년 국권 쟁탈에 의해 빚어진 지난 10년 동안 쓰라리게 받았던 민족적 차별 대우, 각종 통제와 기본권의 제한에 반발한 나라의 국권을 되찾기 위한 애국독립운동이었다.

기미독립선언문은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선언하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吾等(우등)은 茲(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자)로써 世界萬邦(세계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자)로써 子孫萬代(자손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민족자존)의 正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독립선언문 초안>

3.1운동이 발발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의 무력정치에 의한 강압 지배에 대한 한국 국민의 독립의지였다. 일제 총독부는 조선인들의 언론, 집회, 결사 자유도 박탈하였다. 조선인들에 대한 사법 처우와 행정기관의 차별 대우가 심하였고, 조선인들의 해외여행도 제한하였다. 임야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을 벌려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조선인들로부터 많은 땅을 수탈하였고, 회사령을 통해 조선인들의 경제생활을 통제하였다. 3.1운동을 실패한 독립운동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3.1독립운동의 역사적 중요성과 별개일 수가 없다. 3.1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분연히 항거하여 억압될 수 없고, 억압되지도 않는다는 민족의 정신과 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이다. 3.1독립운동은 일부 지역적이거나 일부 엘리트 집단의 운동이 아니라 전 민족, 민중이 참여한 역사 이래 최초의 비폭력 독립운동이다. 이 운동이 패망한 일제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는 정신적 자산과 능력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헝가리 항쟁과 체코의 봄 같은 역사적 의미성

2019년 2월 2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 3.1운동의 의미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반도 미래구상’에서 해외학자로서 초청된 희망의 신학자요, 독일 튀빙엔대 명예교수 위르겐 몰트만은 3.1운동은 ‘민중의 외침’이자 ‘한국 민족 공동의 미래를 위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규정했다. 몰트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구권 사회주의국가 헝가리, 체코 등지에서 일어났던 소비에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운동이 외견상 실패로 보였지만 의미가 없지 않았다”며 한국의 3.1운동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몰트만은 3.1운동의 의미를 다음같이 지적했다. 첫째, 1919년 3월 1일 한국 민중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외쳤다. 둘째, 자신의 자긍심을 증명하고 자유와 연대를 위해 희생했다. 셋째, 한 민족의 문화적 기억에 있어 실패와 고난은 승리로서 각인된다. 몰트만은 비슷한 사례로 195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항쟁’과 1968년 체코 ‘프라하의 봄(Prague Spring)’을 들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후 1956년 소련에서 후계자 후리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운동이 일어나고 사회주의 이상의 다양성이 인정되자 헝가리에서 민주화 열풍이 일어났다. 1956년 10월 23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학생과 시민이 연대해 소련군 철수 및 복수 정당제에 의한 자유선거 실시, 표현과 사상의 자유, 정치범 석방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당황한 소련군은 12월 4일 대규모 군사 개입을 단행 헝가리 전 국토를 장악해 버렸다. 결국 민주화 기수 너지(Imre Nagy) 수상이 주도한 헝가리의 반소 자유화운동은 수천 명이 희생되고 20만 명이 국외로 망명하는 참담한 비극을 남기고 끝났다.

1956년 소련에서 벌어진 스탈린 격하운동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국민의 불만이 높았다. 이 상황에서 1968년 1월 총회를 통해 스탈린주의자인 노보트니가 사임하고, 개혁파인 두프체크가 당제1서기를 맡았다. 개혁파는 4월 열린 총회에서 새 강령을 채택하였다. 내용은 재판의 독립, 의회제도의 확립, 사전검열제의 폐지, 민주적인 선거법제도의 창설, 언론·방송·출판·집회의 자유보장 등이다. 개혁을 통해 한동안 프라하의 봄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체코 사태가 동유럽으로 파급될 것을 우려한 소련군이 1968년 8월 20일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했다. 1969년 4월 후사크가 당제1서기가 되었다. 이로써 프라하의 봄은 끝나버

렸다.

몰트만은 두 나라 시민봉기 모두 옛 소련의 탄압으로 무산됐지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의 목숨이 희생된 헝가리 항쟁은 ‘소련 침략에 맞선 국가적 저항’으로, 프라하의 봄은 문화혁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몰트만이 언급하는 바같이 1960년대 헝가리와 체코의 저항운동이 실패로 끝났으나 1990년에 들어와 동구의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와 민주화의 꽃을 피운 것 같이 1919년 3.1독립운동도 당시에는 외형적으로 실패했으나 내면적으로는 독립정신을 고양시켰고, 외형적으로는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가장 위대한 민족 운동 기독교인에게는 민족구원 신앙운동

역사학자 200명에게 한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 80%가 3.1운동이라고 대답했다. 3.1운동이 우리 민족사에 큰 사건인 것은 당연한 것이다. 3.1운동은 참가한 많은 국민들의 피해를 초래한 실패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 결과 일본이 망한 것도 아니고, 조선이 독립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적 민족 정기(精氣)를 세우는 면에서는 성공했다. 3.1운동 당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당시 일부 기독교인들은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적 행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 신앙의 지도자들은 기독교 신앙과 애국 및 구국의 길을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그 시대의 역사적 과제 해결에 무관심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 거의 모두는 신앙적 결단에 의해 참여했다. 장로교 이순훈 장로와 감리교 신석구 목사가 이러한 신앙과 애국을 연결시킨 대표적 인물이었다. 이순훈 장로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난과 싸웠다. 유년시절 남의 집 심부름꾼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가난한 삶을 살았다. 청년기에 사업을 일으켜 큰 부자가 되었다. 남강은 부를 누리면서 편안한 삶 대신 불쌍한 조선의 백성을 선택했다. 선생은 나라를 위해 신앙과 애국을 결합한 기독교 학교 오산학교를 세우고 3.1운동의 민족대표로 활약했다. 남강의 유훈은 오늘날 후손들에게 희생의 정신을 일깨운다.

“겨레의 광복을 위하여 힘쓰라. 내 유해는 땅에 묻지 말고 생리 표본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위하여 쓰게 하라. 그리고 서로 돕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하라.”

신석구 목사는 신앙의 승리자, 희생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목회자로 존경받고 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신앙으로 결단하고 민족의 문제에 뛰어들었다. 그는 당시 서울 수표교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오화영 목사에게 민족대표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바로 결정할 수가 없어 이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마침내 2월 27일 새벽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4천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도를 네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에 즉각 3.1운동에 참여할 뜻을 결정하였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3.1운동은 민족독립운동이며 동시에 민족구원 신앙운동이었다. 국권을 상실하여 시민의 기본권(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을 빼앗긴 일제의 정치적 속박 상태에서 민족과 국가의 권리를 찾는데 기독교 신앙인들이 참여하는 국가구원 신앙운동이었다. 3.1운동은 경건한 신앙의 내면이 곧 역사적 요청에 따라서는 민족이나 사회의 차원에서 증언된다는 구조적 발전이었다. 1919년 3월 평남 강서지역에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전단지 내용은 이렇다.

“...신자는 매일 세 때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말씀과 기도를 통한 3.1운동 참여는 고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이 점이 당시 총인구 1.5%에 불과했던 기독교 세력이 지도적 총교파자(기소)의 17.6%나 차지하게 했던 주요 요인이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신앙운동으로 이해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였고, 이때 이웃이란 일제라는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자기 동족이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민족구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금욕적 은둔의 기도원이거나 신비주의적 경건에서도 겨레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언어가 떠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경건주의는 역설적으로 역사적 신앙이었다.

지도층과 일반 백성이 함께 일으킨 혁명적 사건

3.1운동 당시 조선에는 일본 육군 2개 사단과 1만 3천명의 헌병경찰이 그물을 치고 있었

다. 3.1운동은 한국 역사에서 지도층과 일반 백성이 함께 일으킨 최초의 혁명적 사건이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과고다공원과 태화관, 다른 7개 지역에서 독립선언문이 낭독됐다. 3.1운동은 우발적이며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애국적인 젊은이들에 의하여 잘 준비된 기반 위에서 일어난 운동이었다. 삼천리 곳곳에서 수많은 민중이 만세를 불렀다. 3월 1일을 기하여 고양, 해주,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에서 동시다발의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만세 외침, 시가행진과 같은 님은꼴 시위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평양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천도교가 각각 고종 추도회를 거행하고 시내에서 합류해 만세 시위를 벌였다. 3월 3일 고종 국장 참석차 올라온 수십만 지방 인사들은 3월 1일과 5일의 만세 시위를 목격하거나 참여한 뒤 고향에 돌아갔다. 3월 10일 서울 각급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자 학생들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만세 시위를 이끌었다. 3.1운동 첫 10일간 평안남도가 선봉에 섰다. 3월 4일 강서군 모락장(사천시장)에서는 강서군 모락장교회와 반석교회, 인접 대동군 원장교회와 산수리교회 등 4개 교회가 연합해 5천명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독립만세 운동은 1919년 3월 1일을 전후로, 시기는 그해 5월 말까지 또는 그 이듬해 3월 말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물론 해외에 이주해 있던 동포들에게까지 확산되었던 운동이다. 만세운동에 참여한 수가 202만여 명, 시위 횟수 1,542회, 사망자 7,509명, 부상자 15,961명, 피체포자 46,948명, 파괴 및 전소된 민가피해 715호, 교회 74개소, 학교 2개 등이었다. 50명 이상이 참여한 시위만 1,500여 회를 넘었고, 참여 연인원은 202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1919년 3.1운동은 전국 220군(郡) 가운데 211군(95.9%)에서 일어났다. 지역별로 평안남도는 3월 1~7일, 함경남북도와 경북·전북은 3월 중순,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등은 3월 말에 시위가 정점에 이르렀다.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교수 이송순은 “서울과 거리가 먼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도 기독교와 천도교 등 종교 세력의 조직적 운동으로 빠르게 시위가 시작돼 대규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국편 DB 자료를 통해서도 3.1운동의 전국적, 전 민족적, 전 계층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북 청주와 충남 청양 등 전국 43군에서는 야간에 산 위에서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산상 횃불 시위’가 벌어졌다. 이송순은 그 이유를 다음같이 설명한다.

“경찰이나 헌병의 출동이 어렵고 폭력 진압을 피하기 쉽기 때문에 시위 참여자의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독립과 저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산 위에서 야간 횃불을 사용한 것이다. 산상 횃불 시위는 농민들의 자발적 시위에서 두드러졌다.”

경남 합천군 화하·상백·백산면과 인근 산청군 생미랑면 유지들이 반경 20km 내 마을 주민들을 동원한 독립만세시위였다. 시위에 소극적이라고 알려졌던 유림도 앞장섰다. 4월 2일 통영 장날 시위에는 소복을 입은 통영 기생 5천명이 시위 대열 선두에 섰다. 정막대(丁莫來·21), 이소선(李小先·20) 등 7명이 기생단을

조직해 시위에 불을 지폈다. 수원, 안성, 진주, 해주 기생들도 만세 대열에 합류했다.

3.1운동은 전 민족이 참여한 독립운동이었다. 이 만세시위운동에 당시 백성들이 참여했던 것은 일제의 반인륜적인 무력적 억압통치와 착취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공유된 저항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천 800만 정도였으니 총인구의 10%가 넘는 참여는 우리 역사에 처음 있는 일로써 우리 시민이 역사 형성에 주체적,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근대화를 여는 시민혁명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폭력운동 아닌 평화적 저항운동

기미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독립사상은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보편적 가치관과 인류공존을 지향하는 비폭력적 저항이었다. 1919년 3월 평남 강서지역에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전단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마며, 주먹으로 때리지 마라. 이는 아

산수리교회 등 4개 교회가 연합해 5천명이 모인 만세시위에서 일제 총격으로 13명이 목숨을 잃고 4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시위대는 무단 발포를 한 사천헌병주재소를 습격해 헌병과 보조원 4명을 살해했다. 시위대의 폭력응징은 처음부터 의도된 사건이 아니라 일제의 발포로 53명의 사상자가 난 위기상황 속에서 벌어진 정당방어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3.1운동은 비폭력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사상자만 내고 독립 쟁취라는 목적에서는 실패한 운동이었다. 그리하여 사회개혁을 갈망하던 많은 세력들에게 무기력한 투쟁에 대한 회의만 안기고 이들을 기독교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그로 인한 운동역량의 손실,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무단 통치를 종식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문화 통치로 더욱 강화하도록 초래한 면도 있다.

임시 정부 탄생 계기

실패한 운동으로 기록되지만 3.1운동은 임시정부가 생겨나는 원동력이 되었고, 비폭력운동으로써 세계에 우리의 존재를 증명했

“3.1절이란 독립선언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세웠기 때문이다.”

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 지며...”

독립단 전단지 내용은 억압자 일본인에 대한 적대와 폭력을 자제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던 태도를 나타내며,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와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할 것으로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서 초안자 최남선은 그 내용이 기독교 이념과 관련됨을 훗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당시 기독교인만의 독특한 3.1운동 방법이란 억압자 일본인에 대한 적대와 폭력을 자제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독립할 것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자는 것이었다. (요일별) 말씀과 기도를 통한 3.1운동 참여는 기독교인의 독특한 것으로,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계획하고 적극 참여한 것은 권익 신장이나 권력의 헤게모니를 잡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민족을 위해 선두에 서서 자신을 희생하고 일제에 항거했던 것이었다. 3.1운동 당시 한국 교회의 신앙은 오늘날의 한국 교회처럼 개인화되지 않고, 공공성을 띤 것이며, 복음과 정의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진정한 축복으로 여긴 것이다.

평안남도 강서군 모락장(사천시장)에서 모락장교회, 반석교회, 인접 대동군 원장교회와

며,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나면서 백성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무엇보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개념이 변하면서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했다. 왕을 위한 궐기가 아니라 민족자결주의 영향 속에서 민족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그 동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1919년 3월 1일 일어난 거족적 독립운동은 자주독립, 민주평화를 내세우며 지속적 항일운동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3.1정신으로 승화되어 1919년 4월 13일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탄생의 정신적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만주 일대의 무장독립 투쟁은 대원(隊員)을 모아 버릴 수 있게 되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한국이란 나라가 존재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었고,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 독립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다. 나아가서 해방되어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도 3.1정신 위에 건국되었다. 독립선언이 발표된 후 국내외 각지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중국 상하이로 모여들었다. 이들이 상하이에 집결한 것은 선언서를 통해 천명한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1919년 4월 10일 밤 이들 중 29명이 대표가 되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먼저 설립한 것은 임시의정원이었다. 임시의정원은 요즘 국회와 같은 것이다. 임시의정원은 설립과 더불어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의장으로 선출된 이동녕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국호(國號)였다. 신석우(申錫雨)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칭하지”고 동의하였고, 다른 의원들의 재청을 거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해

졌다. 이로써 한민족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가진 국가가 탄생되었다. 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고, 내무·외무·법무·재무·군무·교통의 6개 행정부서를 둔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임시의정원은 이 관제에 따라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행정부서 책임자인 국무원을 선출했다. 헌법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 통과시켰다. 회의를 마친 것은 1919년 4월 11일 오전 10시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이를 유지 운영하기 위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탄생

3.1운동을 계기로 중국 상하이에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건립은 한국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수립 당시 제정·공포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하면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군주주권과 전제(專制)군주제의 역사가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의 역사로 바뀐 것이다. 민족사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건립되면서 이루어졌다.

3.1절이란 단지 독립선언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3.1독립선언서는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독립국으로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세웠기 때문이다. 만일 독립국이라는 것을 선언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면 3.1독립선언은 별다른 역사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런데 4월 상하이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세우는 역사적인 임시정부를 세운 것이다. 3.1절을 맞아 그 수단인 만세시위운동도 기념할 필요가 있지만 본질을 더 중요하게 기념할 필요가 있다. 3.1독립선언의 본질은 독립국임을 선언한 데 있고, 독립국으로 세운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다. 3.1독립선언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탄생시켰다는 데 있다.

3.1독립선언문이 선포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3.1운동 정신은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선포한 임시헌장에 그대로 반영돼 대한민국의 청사진이 됐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1조)임을 선언하고,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4조)’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명백히 밝혔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1천 달러(2018년)로 ‘3050클럽’(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인구가 5천 만 명 이상인 국가클럽[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7번째 진입국가 되고, 11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 토대에는 3.1절이 선언한 자유민주 독립국가 정신이 있다. 윤치호, 한규철, 박영효를 비롯한 당시 일부 지도층이 근시안적 시각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제압한 군국주의 일제의 국제적 위상과 일제로부터 받을 박해를 두려워하여 ‘달갈로 바위를 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한 3.1운동은 오늘날 1백 년 후 세계 9위 수출국, 11대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서 그 진면목을 드러낸 것이다.

(계속)



차세대를 위해 모인 차세대 교사, 부모, 목회자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차세대 교사부흥집회 3월 13일 서빙고 본당

지난 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 차세대 교사부흥집회 ‘타협의 거센바람’의 열기가 뜨겁다. 차세대 교사, 부모, 목회자 1천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다음세대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뜨겁게 중보기도했다.

첫 번째 집회에서는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과)가 ‘여경지근(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의 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 교수는 “차세대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교사, 부모, 목회자가 차세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우 성도(하늘공동체)는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을 즐거워 했으면 좋겠다”며 “내 모습이 하나님을

만난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말보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차세대 교사부흥집회 ‘타협의 거센바람’ 두 번째 집회는 오는 3월 13일 저녁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이재만 선교사(창조과학선교회 대표)가 ‘타협의 거센바람’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외국어로 배우는 ‘OBC 과정’

외국어가 편한 성도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

온누리교회 대표 양육프로그램 ‘OBC 과정’이 다언어화 되고 있다. 해외 주재원이나 그 자녀 등 한국어보다 외국어 사용이 편한 성도들을 위한 국제부 양육 프로그램이 줄지어 개강한다.

지난 7일(목) 개강한 영어 일대일 제자양육은 6월 27일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진행된다. 박다니엘 목사가 강의한다. 중국어 일대일 제자양육은 지난 3월 8일(금) 개강했다. 6월 28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5층 다락방에서 실시된다. 염문홍 목사가 인도한다. 불어로 배우는 창세기(10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4시 양재 온누리교회 강의동 204호에서 진행된다. 제라드 티네베 목사가 담당한다. 지난 3일(주일) 개강한 스페인어 제자훈련은 11월 24일까지 도곡교육관 소망홀에서 열린다. 네이라 목사가 담당이다. 영어와 독일어로 배우는 OBC 갈라디아서도 개강한다. 영어반 3월 16일, 독일어반 5월 4일부터 7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 서빙고 성가대실에서 진행된다. 이비오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02-3215-3685

〈국제부 양육 프로그램〉

부서 및 언어	프로그램	시 간	학습기간	학습장소	강 사
영어예배/영어	일대일 양육자반	목요일 오후 7시~9시30분	3.7~6.27	믿음홀	박다니엘 목사
중국어예배/중국어	일대일 양육자반	토요일 오후 1시30분~3시30분	3.8~6.28	5층 다락방	염문홍 목사
프랑스어예배/불어	창세기	주일 오후 4~5시	3.10~7.7	강의동204	제라드 티네베 목사
스페인어예배/스페인어	제자훈련	주일 오전 11시30분~오후 1시10분	3.3~11.24	도곡 소망홀	네이라 목사
영어/독일어	OBC 갈라디아서	영어 오후 12시 독일어 오후 12시	3.16~4.27 5.4~6.15	서빙고 성가대실	이비오 목사

차세대, ‘초등1학교 입학예배’ 드려

차세대가 올해 처음으로 ‘초등1학년 입학예배’를 드렸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초등1학년 입학예배는 지난 3일 선교관 4층 누리홀에서 각 부서별로 드렸다. 양재 온누리교회 초등1학년 입학예배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 기쁨홀에서 연합으로 드렸다.

차세대 초등1학년 입학예배는 초

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과 차세대 교사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이날 예배에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가방에 성경책을 넣어주고, 예수님 모양의 액세서리를 달아주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 편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나라와 민족 위한 대청 연합새벽기도회

대청청년부가 3.1절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한 대청청년부 연합 새벽기도회(이하 대청 연합 새벽기도회)’를 개최했다.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열린 대청 연합 새벽기도회에는 청년 634명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 다음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었다.

오지는 자매(여호수아공동체)는 “많은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강신익 장로 CCF 신임회장 취임

‘2019 CCF 정기총회’ 개최



강신익 장로

장로가 이임하고, 강신익 장로가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달 28일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열린 ‘2019 CCF (Christian CEO Forum) 정기총회’에서 이남식

이남식 장로는 이임사에서 “지난 3년 동안 CCF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임회장 강신익 장로는 취임사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CCF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축복했다.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3990	최희숙	부천 화평	1134027	배경주	진새굴	1134074	박미경	여호수아	1134114	정희선	가정사역
1133991	강건희	이중흥	1134028	이중흥	진새굴	1134075	오주환	여호수아	1134115	문성오	Gil
1133992	양소망	하늘	1134029	최은정	강남C	1134076	주한울	여호수아	1134116	최영자	일산
1133993	김시원	하늘	1134030	안예원	부천 Dream	1134077	한상훈	여호수아	1134117	김하혜	J4U
1133994	이지혜	하늘	1134031	유민중	부천 Dream	1134078	권혁호	여호수아	1134118	김지유	분당A
1133995	노지형	강동 말씀	1134032	박국요	부천 Dream	1134079	박지용	여호수아	1134119	한상희	도곡
1133996	이상엽	용산	1134034	강신호	부천 Dream	1134081	김나라	남양주C	1134120	김영화	영등포구로
1133997	이수미	영등포구로	1134047	김경석	관악금천	1134082	현동환	서초D	1134122	김찬규	도곡
1133998	김영우	Gil	1134048	정혜진	서초A	1134083	김준형	수원 서누리	1134124	임준혁	인천 믿음
1133999	곽현지	가정사역	1134049	황우주	양재	1134084	임태영	J4U	1134125	심우리	인천 사랑
1134000	노은미	S브릿지	1134050	김숙희	수원 남누리	1134085	장건희	J4U	1134126	최경목	인천 소망
1134001	문은혜	인천 소망	1134051	이은관	동대문중앙	1134095	박정권	경기A	1134127	차명현	도곡
1134013	황시예	동작	1134052	정이정	강동 믿음	1134096	홍두표	여의도	1134128	김성준	가정사역
1134014	유하나	인천 소망	1134053	이광규	인천 소망	1134097	박효문	하늘	1134129	권명지	부천 소망
1134015	엄영환	대전 남누리	1134054	김지원	분당A	1134098	연도혜	하늘	1134130	김형일	부천 소망
1134023	이기명	부천Dream	1134055	임인택	강동 믿음	1134099	이재경	하늘	1134131	방상혁	OEM/가정예배
1134024	김혜주	부천Dream	1134056	오상윤	대청공동체	1134100	김세인	하늘	1134132	김선영	대전 서누리
1134025	장일암	진새굴	1134072	정대중	여호수아	1134107	백성선	서산온누리	1134133	모렐 Robert	인천 믿음
1134026	이승호	부천ream	1134073	강다현	여호수아	1134109	차은호	서산온누리	1134134	김진솔	하늘
									1134135	도지혜	S브릿지
									1134136	배상우	노원
									1134137	이남주	S브릿지
									1134151	장유진	양재
									1134160	장희진	인천 소망

How Mission 총체적 선교스쿨

3월 30일 오후 5시 도곡교육관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 ‘How Mission 총체적 선교스쿨’에 참가하면 해답을 알 수 있다. How Mission 총체적 선교스쿨이 3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도곡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총체적 선교 전략인 ‘CHE(Com

munity Health Evangelism)’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 자연농법, 적정기술 등 아웃리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교전략을 체험해 볼 수도 있다. 선교지에 값진 선물을 하고 싶은 성도들이 참여하면 더욱 좋다.

문의: 010-4120-5046

양재 만남의 잔치

일시: 3월 17일 / 시간: 주일 오후 3시 30분
장소: 양재 드림홀 / 대상: 1월 6일~3월 2일 등록 성도

강남A 신영진	강남C 권은경	도곡 Aki Baba	안선미 여은주	서초C 김수진	양재 김양숙	이희진
	김봉숙		윤관영	이은주	김은숙	송파B 이상림
강남B 김윤혜	최은정	분당A 김동수	서초A 김정완	한성회 한영진	이동욱	
김은경		김지유	하늘	한영진	이선일	
김해중	이경환	심우찬	오병우	서초D 김세빈	이정미	푸른누리 김성우
오영교			이지현	홍서희	장은호	신현주
전 울	경기A 선명업	분당B 김승현	이효은	홍승표	장혜화	이현탁
정종민	이월숙	김정희	조현미		최진설	표은정
		신지원	최문희			
					송파A 김금순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최수민 성도(전도폭발훈련 1단계 수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나는 3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모태신앙이지만 나의 신앙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했다. 주일에배만 드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2년 전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동네 언니의 추천으로 ‘젊은부부학교’를 수강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믿음 좋은 자매들과 함께 기도모임을 하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다. 어느 날 젊은부부학교에서 만난 자매님이 나에게 전도폭발훈련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1초의 고민도 없이 “애기는 들었지만 무섭고 부담스러워요”라며 거절했다. 며칠 뒤 전도폭발훈련을 권유했던 자매님한테서 또 다시 전화가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도 모르게 “네 한번 해 볼게요”라는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전화하신 자매님이 오히려 놀랄 정도였다.

나는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전도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왔다.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살아온 나에게 전도폭발훈련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훈련 기간 동안 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

전도폭발훈련을 하면서 노방전도와 신랑에게 전도실습을 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노방전도를 한다고 생각하니 그저 떨렸다. 공원에 나갔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전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님을 모르는 그들이 안타까워 눈물도 흘렸다. 내 신랑도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천국 확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당연히 모범답안이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남편이 “천국에 대해 솔직히 확신이 없다. 믿음의 행위가 부족해서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때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파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확신을 알려주고 싶은 열망이 차올랐다. 전도폭발훈련은 나처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나 넘치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들으면 매우 좋은 훈련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장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천국에 못 간다는 생각을 해보면 이 훈련을 놓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내가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수료 간증



/ 한창희 성도(서초C공동체)

멋진 남편! 멋진 아빠!

두란노 아버지학교 첫 시간, 모든 스태프들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활짝 웃으면서 수강생들을 환대해줬다. 어떤 사회단체나 직장에서도 볼 수 없는 은혜의 현장이었다. 알차게 준비된 커리큘럼과 강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참여하게 됐다.

강의를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소홀해지기 쉽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사랑한다고 충분히 표현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한다.

부부관계에서도 사랑 표현은 필수다. 평소 아내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을 자주 해야 한다. 좋은 부부관계가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두란노 아버지학교에서는 여러 과제를 내준다. 첫 번째 과제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느낌을 글로 작성하는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아버지상을 살펴보게 됐다. 올바른 아버지상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과제도 있다. 아내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 아내에게 상처를 줬던 것들에 대해 반성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다. 자녀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나의 생각을 강압적으로 주입하려는 잘못된 양육방식을 돌아보게 되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첫째 딸 지원이가 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숙제 중에 자녀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과제가 있다.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더니 아이들이 전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게 됐다. 멋진 남편과 멋진 아빠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두란노 아버지학교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원사역팀 스태프 간증



/ 임장현 팀장(하나원사역팀)

하나원사역팀
기도모임에 오세요!

하나원사역팀은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과 너무 다른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생활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하나원사역팀은 하나원에 입소한 지 3주차 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문화체험사역’을 하고 있다. 탈북민들에게 대중교통, 은행거래, 우편물 보내는 방법, 카드 및 현금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많은 탈북민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하나원에는 하나원교회가 있다. 하나원교회에 나오는 탈북민 80% 정도는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다. 중국에 있을 때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성경공부를 하고 복음을 접해본 탈북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하나원교회에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된다. 하나원교회에서 받는 12주 동안의 신앙교육이 전부다. 그렇다 보니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일에도 신앙이 무너지기가 쉽다.

지난 2월 16일 하나원사역팀이 나들이사역을 했다. 나들이사역은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레크리에이션, 한강 유람선 견학, 강의 등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날도 많은 탈북민들이 나들이사역에 참여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나들이사역이 지금은 한국기독교 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에 전수되었다. 많은 탈북민들이 나들이사역을 통해서 불안과 염려를 덜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나는 수년 동안 하나원사역팀에서 총무와 팀장으로 헌신해 왔다. 수많은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탈북민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다. 우리 안에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이 많은데 탈북민들과 교제하다 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교회 공동체들이 관심을 갖고 탈북민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그 관심의 첫걸음은 하나원사역팀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401호에서 진행된다.

문의: 010-6745-0550

재소자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 정민음 형제(가명, 소망교도소)

그러나 그분과 함께라면

나는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다. 어느덧 교회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기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 그런 내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수료하면서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아버지는 자식을 용서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은 것 같았다.

나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5살인 제 딸아이가 8살이 되어 학교에 가기 전까지 제발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같이 이불을 덮어쓰고 기도했다. 때로는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울부짖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밖에 없었다. 2심 항소 결과는 딱 내가 딸아 이와 손을 잡고 학교 갈 수 있는 3년이였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덜컥 겁이 났다.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한 것과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큰 딜레마에 빠

진 나는 이번에 같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은 재소자 J형제에게 “이곳을 나가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형제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양면 된다”고 응원해 주었다. 박찬빈 장로님도 나를 위해 응원과 기도를 해주셨다.

나는 이제 그 어렵고 좁은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한다. 그 방법이 어떻든 그 과정이 어떻든 가보려고 한다. 사실 두렵고 무섭다. 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장담은 못하겠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라면, 또한 나를 믿어주고 기도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나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한 그 좁고 힘든 길을 갈 것이다.

재소자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과를 전한다. 며칠 있으면 사회로 복귀하는 J형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진심과 정성으로 양육해주신 박찬빈 장로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사람사역팀 봉사자 모집
분야: 일대일 양육, 예배찬양 인도자
문의: 구자엽 팀장 010-4286-0078

장로칼럼

권사칼럼

네버 어게인(Never again)

새신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



임희창 장로
(서빙고 차세대 대표, 동대문중랑공동체 대표)

생명이 소생하는 3월이 되면 한국인들은 두려움 없이 온 민족이 들끓처럼 일어서 독립선언에 나섰던 그날을 기억한다. 3.1운동은 개신교를 중심으로 종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진행했지만 일제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숭한 교회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미션스쿨 학생들이 큰 피해를 겪었다. 1919년 10월 4일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보고에 따르면 만세현장에서 죽거나 유관순 열사처럼 모진 고문으로 숨진 중·고등학생들의 수가 적지 않다. 일반 전화나 휴대폰도 없었던 시절 20만 명이나 되는 일반 경찰들의 눈을 피해 같은 날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20세 미만 여학생 62명이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까지 다니며 비밀 서류를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 신학자는 최근 세미나에서 탄식하며 이런 말을 했다.

“어린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드는 순간 어떤 극형이 찾아올지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희생을 감내했던 기독교가 100년 뒤 섬이 돼버리고 말았다.”

한민족처럼 수난의 역사를 극복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룬 유대인이 한국인과 다른 점 중 하나가 철저한 차세대 역사교육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일반적인 역사가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교육이 곧 신앙교육이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5%에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30%, 미국 아이비리그 학생의 23%,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폭발적인 시청률을 올렸던 종편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패러디한 상황극과 멘트가 유행이다. 임시위주의 정형화된 한국교육

과 그로 인한 이기적인 출세주의에서는 아인슈타인, 스티븐스필버그, 빌게이츠와 같은 천재 유대인이 나오기 힘들다.

유대인들이 탁월할 수 있는 배경은 역사교육과 신앙교육에 있다. 유대인 대학살 장소인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의 과거는 반복 된다’는 글귀가 걸려있다. 오랜 세월 나라 없는 어려움을 겪은 유대인들은 과거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조상들의 뼈아픈 역사를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다. 그들은 수천 년 전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먹었던 무교병을 자녀들과 나눠먹으며 학대받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자들도 군대에 가는 이스라엘은 훈련장 마지막 코스로 ‘맛사다 언덕’에 데려간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로마군인에게 끝까지 저항하며 생존자 전원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맛사다 언덕에 올라가서 “네버 어게인(Never again)”을 외친다. 기회가 되면 우리도 교회 학교 학생들과 함께 독립지사들이 고문을 당했던 서대문 형무소나 절두산 순교묘지에 다녀오고 싶다.

온누리교회에는 열정과 헌신, 눈물의 기도로 차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신다.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회사를 요약해서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가 선배들의 순교와 헌신의 대가를 치르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것과 차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임을 깨우쳐주면 좋겠다. 무너져가는 공교육의 현실 앞에서 어렵게 기독교 교육을 감당하고 있는 미션스쿨에 대형교회들이 관심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교육과 신앙교육은 가정과 교회, 미션스쿨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채정자 권사
(서대문공동체)

나는 서대문공동체 새가족반을 섬기고 있다. 새가족반은 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섬김과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다. 그 덕분에 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있다.

새가족반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새가족반 담당목사와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 사역자들이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과 비전, 창조주 하나님, 큐티의 이론과 실제 등을 새신자들에게 강의하신다. 담임목사의 말씀과 교회소식도 영상을 통해 함께 들려주고 있다. 많은 새신자들이 새가족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온누리교회 지체로 세워지고 있다.

새가족반 스테프들은 새신자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새가족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다. 새가족반에 오시는 새신자들은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많다. 그분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새가족반은 믿음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새가족반 스테프들은 새신자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준다.

4주 동안의 새가족반 교육을 마치면 5주차부터는 일대일 제자양육이 시작된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서 새신자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 새신자들은 4주간의 새가족 교육과 일대일 제자양육 4주차를 마치면 온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이 된다. 이때 새가족을 위한 ‘만남의 잔치’가 열리는데 온누리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오

셔서 새가족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준다. 새가족반 스테프들은 만남의 잔치에서 새신자들을 위해 맛있는 식사와 블레싱을 준비한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신 많은 분들이 지금은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 성도님이 기억에 남는다. 그 성도님은 따님을 통해서 온누리교회에 등록하셨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신다.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다. 그 성도님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됐다”고 고백했다. 특히 새가족반에서 잘 섬겨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진 성도님을 보면서 새신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게 됐다.

서대문공동체에서는 새가족반이 끝나면 새신자들을 순에 배정한다. 가끔 새신자 중에서 순에 잘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 새가족반에서는 그분들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리더십 단계 SNS를 만들었다. 서대문공동체 리더십들과 새가족반 스테프들이 함께 새신자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가족반을 섬기다 보면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다. 그때마다 나도 새신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한 영혼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매우 기뻐한다”고 말씀하신다.

기도 없이는 새신자들을 끝까지 섬길 수 없다. 나의 힘과 자원으로 새신자들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겸손한 마음과 초심을 잃지 않고 새가족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

신앙에세이

‘초등학교 입학예배’를 드리며



석승호 목사
(양재 차세대)

신학대학원 시절 수업 중에 있었던 일이다. 전 대한예수장로교 통합총회장이셨던 한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주셨다. 그 목사님은 목회자의 자녀였는데 어머니께서 주일에는 꼭 흰 쌀밥에 소고기국을 끓여주셨다고 한다. 그래서 늘 주일이 기다려졌다고 했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이었다. 목회자의 자녀로 자란 나는 무조건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사면 교회에서 먼저 입고 신곤 했었다. 부모님의 강조사항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다. 그래서 새 옷과 새 신발을 입어보고 신어보고 싶어서 주일을 기다렸

다. 마치 새 옷을 입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싶은 기분으로 말이다.

‘초등학교 입학예배’를 준비하면서 온누리교회 꿈이자라는땅 1학년 아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입학은 큰 의의가 있다. 미취학(未就學)과 취학(就學)으로 나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배움으로 나아간다는 취학의 의미는 배움의 준비는 끝났고 배움의 길로 나아가는 첫 발을 떼는 순간이다.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는 것은 6학년만큼 기피대상이 된다고 한다. 유치원처럼 한 명 한 명을 보살필 수 없는 교육시스템에서 챙겨주고 돌봐줘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의 이야기도 그렇다.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이 얼마나 일찍 끝나는지 학교에 보내놓고 뒤돌아보면 마칠 시간이라고 한다. 차라리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편하다고도 한다. 학구열이 심한 지역에서

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가 부모 한 사람이 휴직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한다. 그만큼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변화가 많은 시기이다.

온누리교회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돕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예배를 올해 처음으로 드렸다. 초등학교 입학예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2일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어린이, 학부모, 교사 등 280여 명이 함께 초등학교 입학예배를 드렸다. 주일에 드러지는 예배와 형식이 같았다. 하지만 설교 후에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다짐의 고백’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많은 학부모들이 “세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선으

로 여기고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다. 그 순간 부모님들은 간절함으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눈물 젖은 부모의 얼굴을 통해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예배의 의미를 작게나마 깨달았을 것이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그 다음세대에게 이 사랑을 전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동안 함께 기도했다. 부모님들은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과 학교에서 동행하라’는 의미로 아이들의 가방에 열쇠고리를 달아주었다. 선생님들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어린이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책가방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이들 한 명 한 명과 손뼉을 마주쳤다.

많은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초등학교 입학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차세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아론의 기도

이것을 복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차원의 복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을 복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복인데 모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셨기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동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어떤 강이나 설교를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셨구나”고 고백하십시오.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강 주심의 복

세 번째 복은 ‘평강 주심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네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28절).

평강 주심의 복은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취주시는데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이 얼굴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든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얼굴

을 숙인다’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얼굴, 고개를 숙인다’는 표현을 찾아보면 그것은 ‘화가 나다. 분노하다. 불쾌하다’는 의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기사에서 ‘가인이 고개를 떨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화가 났을 때, 분노했을 때 고개를 숙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와 정반대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화가 나면 고개를 쳐 듭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하나님께서 고개를 드신다는 것은 화가 나신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 문화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화가 난 것이고, 고개를 들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문화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선생님 이 저희 아이들을 좋지 않게 봤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우리 문화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을 야단치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간혹 고개를 들고 쳐다보면 “뭘 잘했다고 쳐다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상대방을 쳐다봐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니깐 선생님이 기분 나빴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취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복으로 확장되고, 여기서 평강을 주시는 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shalom’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대적이나 갈등이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살림이 최고의 복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도 1~3절 이내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가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을 먼저 기원하며 편지를 시작하는 것은 구약적 배경이 있고, 틀림없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halom, 하나님의 평강의 복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춤으로 하나님을 아는 복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평강, shalom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shalom은 정말 축복된 상태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입니다. shalom,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때로 두려움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만, shalom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복이지만, 하나님의 shalom, 평강은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복을 누린 자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들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빛의 비춤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병들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의학이 발전해서 수명이 연장될 것입니다. 몇 백 년 연장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을 대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평강의 복을 누렸는지, 누리지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세상을 맞이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강동 온누리교회에 보내는 편지



오카 세초야 목사
(야마가타남부교회)

강동 온누리교회 야마가타 아웃리치팀이 ‘야마가타남부교회’에 방문한지 벌써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야마가타남부교회에 와주신 사랑하는 강동 온누리교회 목회자들과 형제 자매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마가타 아웃리치는 2007년 샌다이 러브소나타를 계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야마가타 아웃리치팀은 12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온누리교회 야마가타 아웃리치팀을 통해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세 가지 은혜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전도의 힘입니다. 야마가타 아웃리치팀은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도전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웃리치 팀원들의 신앙 간증을 통해 야마가타남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은

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마가타역 앞에서 노방전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마가타역 앞에서 찬양하고, 전도지나 마그네틱 카드, 달력을 나눠줬습니다. 어떤 해에는 사영리를 일본어로 외워 와 직접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죄, 구원, 믿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열정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둘째, 희생을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랑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하용조 목사가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올 여름에는 아웃리치팀이 오는 건 무리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용조 목사가님 살아계셨더라면 ‘내 장례식에 오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올해도 야마가타에 갈 것입니다!”

그 해도 아웃리치팀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을 잃은 슬픔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는 그 열정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 가지 은혜 그리고 감동

그때 야마가타 아웃리치팀은 지진 피해지역에서 잔해 철거나 악취제거, 재건된 건물의 페인트칠 등 힘든 작업들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전도집회를 개최했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자매가 몇 달 뒤 크리스마스에 세례를 받았습다.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나고, 가설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 등 많이 회복된 듯 보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고향을 잃은 상처가 깊습니다. 야마가타 아웃리치팀은 그들을 기억하고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도 방문해서 말씀 달력을 나눠주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셋째, 기도의 힘입니다. 야마가타 아웃리치팀은 매년 40일 새벽기도회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제목을 물어보고,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기도에 용기를 얻어 교회 자체적으로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2017년에는 야마가타남부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런 우리의 기도에도 주님이 응답해주셨습니다. 2018년 10월 9일 헌당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동 온누리교회 야마가타 아웃리치팀을 통해서 야마가타남부교회에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 야마가타에서 러브소나타 전도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야마가타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강동 온누리교회 야마가타 아웃리치팀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예배당에서 더 큰 소망을 품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시편 9:2).

강동 온누리교회 야마가타 아웃리치팀을 통해 전도의 힘, 희생을 아끼워하지 않고 주는 사랑, 그리고 기도의 힘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보 하나로 쉽터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21일(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TP35기 단기선교사후련생 모임

훈련: 9월 23일~10월 18일

마감: 8월 26일

문의: 031-331-8182

http://www.visionvillage.org

안산 온누리M센터 의료 봉사자 모집

시간: 매월 4째주 오후 1시~5시

내용: 의료진료 접수 및 세팅 외

문의: 이춘녀 간사(070-8671-8092)

바이블 코딩스쿨 모집

교육: 4월 13일~6월 15일 매주 토 오전

9:30~12:0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홍보관

문의: 02-3215-3651

온누리M센터 바자회 물품 모집

일시: 4월 7일 12:00~15:00

장소: 안산 온누리M센터

대상: 안산 원곡동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모집: 생활용품, 주방용품(그릇, 가전제품

등), 신발, 의류, 잡화류

문의: 김혜성(010-2959-0817)

*현웃과 현신발은 사양합니다.

CMN 마노아팀 아웃리치 모집

일시: 3월 17일 오후 1시 서빙고 버스 출발

장소: 동두천 아프리카 공동체

사역: 외국인 대상 의료, 미용, 사진, 전도,

진료지원

문의: 이대현 팀장(010-3387-7764)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쁨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CGNTV
개국 14주년

14
개국 14주년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방송시간 매주 주일 저녁 6시 20분

3월 10일

박춘강 권사, 백은하 집사 모녀 편



교회학교 선생님이로 보낸 40년,
사랑으로 쌓아올린 아름다운 소망

3월 17일

‘베니’ 구경선 작가 편



장애를 특별함으로 만드신 하나님,
은혜로 그리게 된 더 나은 삶

3월 24일

송실대학교 함승수 교수 편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한국교회의
3.1 운동과 앞으로 가야 할 길